

# 피부 읽어주는 피부과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입니다

한송희/김윤희 실장 투톱 인터뷰



2008년 개원한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에는 유독 재입사 직원이 많다. 부침이 심한 개원가에서는 흔치 않는 일이지만 이곳에서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병원의 관리자로서의 무게를 이겨내고, 그들만의 스타일로 정진하고 있는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았다. 실장 한송희/김윤희 투톱 인터뷰다.

## 결국은 소통, 모두에게 힐링존

개원 멤버로서 결혼과 육아로 잠시 쉬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에서 근무해 온 한송희 실장은 블로그와 카카오톡 채널 등의 SNS 플랫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덕분에 좀더 가까이 환자와 소통하면서 나아가 본원의 강점을 알릴 수 있게 된 부분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전했다.

“많은 부분 만족스러워하며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만을 고집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1:1 맞춤 치료라고 내세우지만 진료도 생략한 채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의료 환경에서 꼼꼼하고 세심한 여자 원장님들의 ‘살핌’은 단연 독보적인 것 같아요.

내 피부를 잘 알아서 좋다고들 하세요.” 이러한 입소문들이 SNS 플랫폼의 날개를 달고 좀더 확산되기를 고대해 본다. 한송희 실장은 가정과 일을 양립하면서 고된 부분도 있지만 원내에서는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터에서만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있다. 특히 결혼과 육아를 앞둔 직원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한다. 육아를 이해하는 동료와 의료진이 있다는 것은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육아 힐링존’을 형성한다.



한송희 실장

문의들이구나.’ 김윤희 실장도 상담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차앤박피부과의 다년간의 임상 노하우를 기본 베이스로 원장님의 섬세함의 깊이가 다르다는 점. 이 금지가 상담시 활력 에너지를 배가한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피부 읽어주는 피부과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라고 말이다. 투툼 한송희/김윤희 실장의 미소가 따뜻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이유다.

### 이사 간 환자가 찾아 오는 병원, 마음이 통하다

한편으로는 개원했을 때의 마음 그대로 기본에 충실한 치료를 해왔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개인 사정상 이사를 갔던 환자들도 치료 시기가 되면 먼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내원한다. 소문 듣고 오거나 소개로 방문하기도 하지만 환자가 매번 잊지 않고 찾아오는 일은 감회가 남다르다고.

“기본에 충실했던 마음이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잊지 않고 와주시니 우리가 기본을 지키며 환자들을 대했던 부분이 잘 전달된 것 같아 기쁩니다.” 김윤희 실장의 설명이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호랑이의 기상으로 팬데믹 상황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모두에게 건강한 일상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 내가 환자여도 너무 좋을 우리 병원

김윤희 실장은 접수/수납은 물론 상담 업무까지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다. 부지런함이 탑재된 그녀에게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의 진료 방식은 그야말로 합이 잘 맞는다.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과정을 교과적으로 실천하는 피부과 전문의의 디테일함이 ‘내가 환자여도 너무 좋을 우리 병원’이라고 전했다. 피부는 한 사람의 생애 주기별로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트러블이 생기거나 기미/색소, 모공, 흉터 그리고 노화까지.

“메디컬 스킨케어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 환자들이 증가하고 방문하는 환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내원하는 환자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의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김윤희 실장은 차앤박피부과라는 브랜드의 힘 또한 막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감사한 상황에서 필요한 건 환자를 마주하는 직원들의 일관된 의료서비스임을 강조했다. 2022년을 원년으로 관리자로서 의료서비스 교육 및 매뉴얼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피부 읽어주는 피부과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

‘내 피부를 모르더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환자들이 본원에 내원하면서 전한 말이다. 무엇보다 현재 내 피부를 읽어주지 않았다고. 한송희 실장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섬세한 원장님들의 디테일은 바로 이 차이구나. 내가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님들은 피부를 읽어주는 피부과 전



김윤희 실장

### 에필로그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는 요즘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에서 마주하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지역의 피부주치의라는 소명을 365일로 확장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피부 읽어주는 피부과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의 온오프라인 소통 행보에도 주목하시라!!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  
블로그 바로 가기



성신여대 차앤박피부과  
카카오톡 채널 바로 가기

